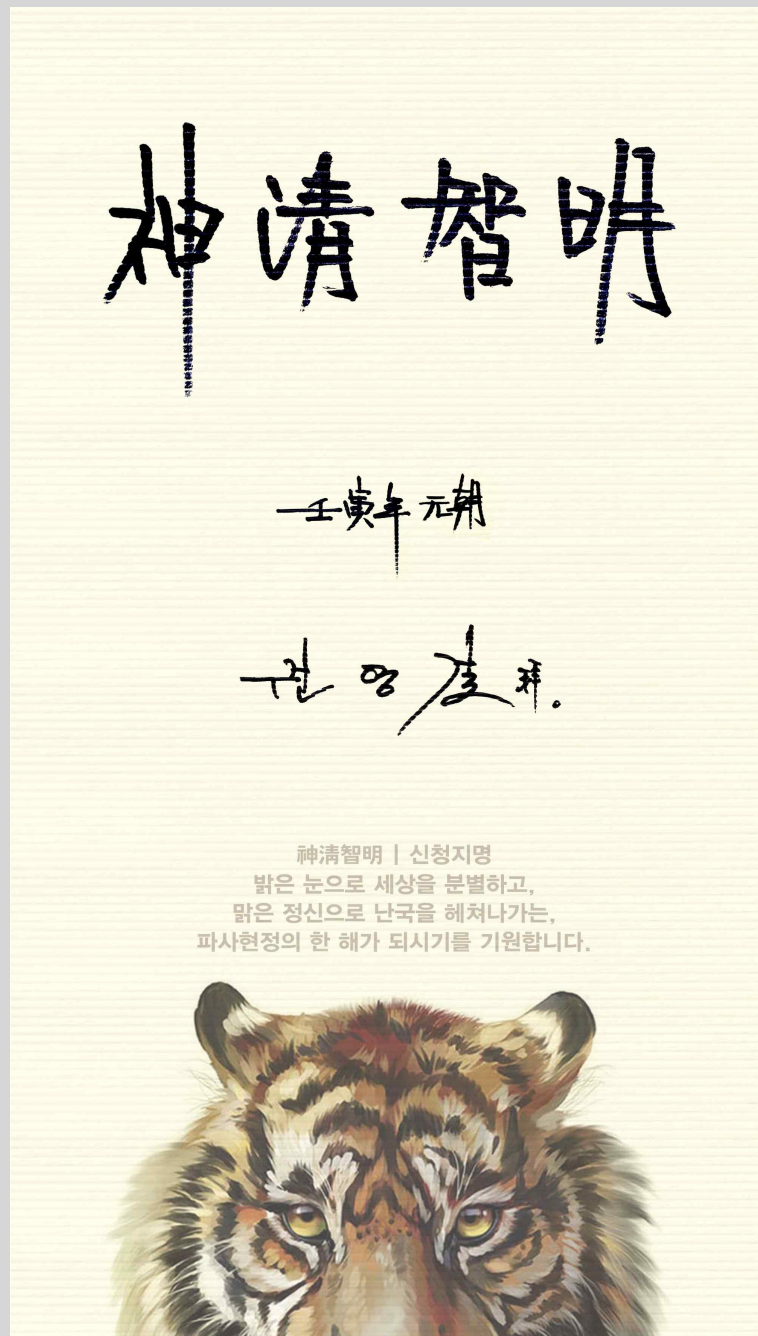




1 본회소식



호랑이 해 : 2년여의 위축된 가슴을 확 펴시다.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괴질(怪疾)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이지도 않는 상대와의 싸움이 우리로부터 2년여의 시간을 앗아갔지만, 우리 동문들의 창작의 열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던 일, 하던 전시를 계속했고, 6500 동문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모으고 발화시키는 새로운 여러 사업들도 이루어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기의 문지방을 넘어오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뜻깊은 저술, <총·균·쇠>를 통해 인류 역사와 문명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들에 대해 한조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긴 인류역사 속에서 총과 쇠는 너무나 짧은 인공물이지만, 균은 인류사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니, 과연 인간이 이 대선배를 이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인간을 끝없이 침체시키는 이 괴질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술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는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 해라하니, 2년여 동안 위축된 가슴이 확 펴지고 정신이 번쩍 나는 듯합니다. 한국인들이 이 무서운 맹수를 좋아하는 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동물은 오랜 친구입니다. 눈은 밝고 처신은 민첩한 영물입니다. 동문 여러분! 밝은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맑은 정신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권영걸 세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회장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이사장

서울대미술인 및 아카이브 수록신청안내

본회는 시각예술분야는 물론, 프로젝트·영화·공연·저서·사업체 등 전 동문의 실적물을 수록하는 「서울대미술인 1946-2022」 발간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하려 합니다. 광복이후 한국미술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46학번 원로동문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한 2022년도 신입동문까지 전 학번, 전공을 총망라하는 전무후무한 자료집이 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 명 칭 : 서울대미술인 1946-2022 (가칭)
- 신청대상 : 전 회원 (수록예정 2000명 내외)
- 신청분야 : 회화/조각/공예/영상/퍼포먼스/설치/건축/디자인
영화/공연/음악/저서/운영사업체/프로젝트 등
- 도록출판 : 2022년 9월 중 예정 (출판 행사 때 배부 예정)
※ 규격 29×22.5cm, 총 500p내외 (1인 1/4p, 이미지 1장 및 경력 8줄)

2. 신청요강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1일 - 2월 28일
- 신청방법 : snuarta@naver.com 메일로 신청서와 이미지 3장 제출
- 이 미 지 : 작품(또는 실적관련) 3장 / 파일명을 이미지 제목으로 표시
- 신청회비 : 6만원 (연회비 3만원 + 도록비 1권 3만원)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입금시 성명, 학번, 학과 기재(예시:김홍도84동양)
※ 임원은 임원회비(2022년도)+도록비 납부
※ 2022년도 연회비(임원회비) 혹은 평생회비 납부자는 도록비만 납부
※ 도록 추가구입 원하실 경우 미리 주문 및 입금(최소수량 인쇄예정)

3. 문 의

- 전화 02-555-1946 문자 010-5235-1946

서울대 소식



신학기 대면수업 확정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가 지난 1월 14일 교육환경개선협의회 회의를 열고 3월 신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 원칙을 확정했다. 주요 대학 가운데 대면 수업 원칙을 확정한 곳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관계자는 "오미크론 치사율이 떨어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면 전환은 큰 고민 없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학기와 달리 대형 강의의 대면 전환도 추가적으로 고려중이다. 기존에 서울대에서는 100명 이하의 강의에서만 대면 수업이 허가됐다. 다만 강의 규모와 관계없이 학생과 교수진이 원할 경우 개별 수업의 비대면 전환은 가능하다. 서울대는 지난해 2학기에 도 전면 대면 수업을 시도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9월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10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기준을 만들어 100명 미만 강의에 한해서는 대면 수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대면 수업은 다시 위축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면 수업 원칙이긴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상 대면 수업이 약 50%에 불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재학생들은 대체로 학교 측 결정을 반기고 있다. 인문대 재학생 심별씨는 "입학한 뒤 아직 한 번도 강의실을 가보지 못했다"며 "직접 대면한다면 교수님도 뵈고, 친구들과이랑 밥도 먹으면서 역동적인 캠퍼스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 인근 상인들 역시 대면 수업 방침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7년간 분식집을 운영해온 김종경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80%가량 줄었는데,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학생 이용이 더 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에서 일하는 편지혜씨는 "1월 들어 손님이 없다가 지난주부터 서울대 학생 거래가 생겼다"며 "방을 구하려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등록금 새해에도 동결

서울대가 새해에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최종 회의를 열고 2022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12월 27일 등심위 1차 회의에서 학교 측은 법정 상한률 최고치인 1.65%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등록금인상을 상한제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학생 측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1차 회의에서 대체로 인하안을 요구해온 예년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동결을 제안했다. 양측은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만장일치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심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코로나 19 상황이 이전보다 심각해진 점 등을 고려해 상호 우호적인 관점에서 협의했다"며 "학교측도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대는 14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게 됐다. 서울대는 2009~2011년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 6년간은 등록금을 인하했다.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이후 2022년까지 4년째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천체투영관 8월 건립예정

노후화가 심했던 자연대 28동의 재건축 공사가 올해 8월에 마무리된다. 새단장한 28동의 2층에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천체투영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자연대 이준호 학장은 "천체투영관은 서울대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과거 예산 문제로 포기했다가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천체투영관은 천체나 천문 영상 등을 반구형 스크린에 투영해 상영하는 돔형 극장이다. 과천과학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등에 마련돼 있으나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한 일반 대학 가운데 천체투영관이 들어서는 곳은 서울대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천체투영관 건립에 드는 비용은 약 20억원. 이



가운데 10%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번역한 고(故) 홍승수 자연대 명예교수의 배우자 고옥자 여사 측이 기부했다. 이번 재건축에는 이장섭(97디자인) 교수가 주축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팀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28동에서 쓰이던 라디에이터를 녹여 빛과 시간 등 자연과학의 의미를 담은 3~3.5m 높이의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할 계획이다. 낡은 문고리를 재활용해 자연대를 빛낸 이들에게 전달할 트로피를 제작하고, 나머지 기물들은 전시 형식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이 학장은 "28동 재건축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로 도약하는 느낌"이라며 "서울대 재건축 역사상 과거를 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뿌듯함을 드러냈다.



기숙사에서 만나는 예술 - Art Dorm

관악학생생활관 900동 지하1층과 2층 복도에는 'Art Dorm'이라는 갤러리가 위치해 있다. 사생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고자 꾸러진 이곳은, 2010년부터 미술대학과 협업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지속해서 전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Enjoy 寓意于物(우의어물)>전이 진행되었다. 김예찬, 김충선, 박수현, 이단비, 정다은, 정서원, 하수민 학생 등 동양화와 석사과정 재학생들이 모여 총 14점의 동양화를 선보였다. 전시 제목인 '우의어물(寓意于物)'은 중국 북송 시대의 시인 소동파(蘇東坡)가 제시한 사상으로, '아름다운 사물을 즐겁게 감상하고 사물에 자신의 의지와 취향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Enjoy 寓意于物>전은 현대 미술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작가와 감상자가 부담 없이 예술을 즐기도록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Art Dorm은 사생에게 일방적으로 예술작품을 공개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작가와 감상자가 소통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이 되고 있다. 특히 전시장 입구에는 방명록이 있어 감상자는 전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메모로 남기고, 작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전시에 두 번째로 출품한 김예찬 학생은 "사생들이 작품의 의미나 창작 의도에 관해 남기는 메모들이 나의 그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다"며 Art Dorm 전시가 작가에게 갖는 의미를 말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작가들이 감상자와 소통할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Art Dorm이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Art Dorm에서는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함께하는 전시 이외에 학내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이 개최된다.

서울대미술관 소식



밤을 넘는 아이들

일시 : 2022년 1월13일 – 3월13일

장소 : 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실1-4

참여작가 : 고경호, 권순영, 김수정, 나광호, 노경화, 민진영, 성희진, 신희수, 왕선정, 정문경

서울대미술관(관장 심상용)에서 1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밤을 넘는 아이들'을 개최한다. '집' '가족' '가정'은 세상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안식처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특히 독립할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가정은 사회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존재다.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은폐되기 십상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30-40대 작가 10명은 회화, 사진, 설치, 영상 등 90점의 작품을 통해 예술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소외의 경험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고경호의 '아들-포지셔닝'연작은 돌 사진, 나들이 사진, 졸업 사진 등 가족 앨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로 이뤄졌다. 빠르고 거센 붓질과 지워진 인물 형상이 가족이라는 규범에 억눌린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 김수정의 'The war: 가장 일상적인'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상 너머 존재하는 폭력을 조명한다. 많은 인형이 걸려있고 바닥에는 골프채, 빗자루, 벨트 등 매로 돌변하는 생활도구들이 놓여있다. 정문경의 '요새'는 헌 아동복을 이어 만든 커다란 천으로 은신처를 꾸민 작품이다. 누군가의 몸을 감싸던 옷을 매개로 연대와 돌봄, 회복의 공간을 구성했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사회공헌위원회 지원 대상 동문 모집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재단법인 관악회)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기 위하여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향후 어린이난치병 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동문 돕기를 시작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추천 대상자
 -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며 기여하였으나, 현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동문
 -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공지와 명예를 드높였으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동문
- 지원규모
 - 10~20명(1인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생활비)
- 신청(추천)방법
 - 추천서(자유 서식)를 관악회 사무실로 우편 및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접수마감 : 2022년 2월 28일(월)
- 선정절차
 - 신청(추천)자 중 사회공헌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940동 418호(신림동,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 재단법인 관악회
 - 대표전화 02-879-8201, 팩스 02-879-8299, 이메일 scholarship@snu.or.kr

2월 신년인사회 겸 조찬포럼

- 일시 : 2월 10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 강연자 및 주제
 - 1주제 : 국무총리·동창회장·총장 '2022년도 국정·동창화·학교 운영방향'
 - 2주제 : 이순재 배우, 가천대 석좌교수 '나의 연기 인생과 리어왕'

- 참가인원 : 200명 이내
- 참가신청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 1년간 40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2월 수요특강

- 일시 : 2월 23일 (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연자 :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
- 주제 : 돈의 인문학
- 참가인원 : 40명 이내(선착순)
- 신청기간 : 2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가신청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무료 (음료 및 도서 제공)

2월 등산대회

- 일시 : 2월 26일 (토) 오전 10시
- 장소 : 북한산 둘레길 8구간(불광역 > 진관사)
- 참가비 : 2만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까지(문의 : 02-702-2233)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 이메일 member@snu.or.kr로 접수
- 참가비 : 신한은행 140-013-055887(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표기
- 신청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 *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올해 동창회비를 납부한 분만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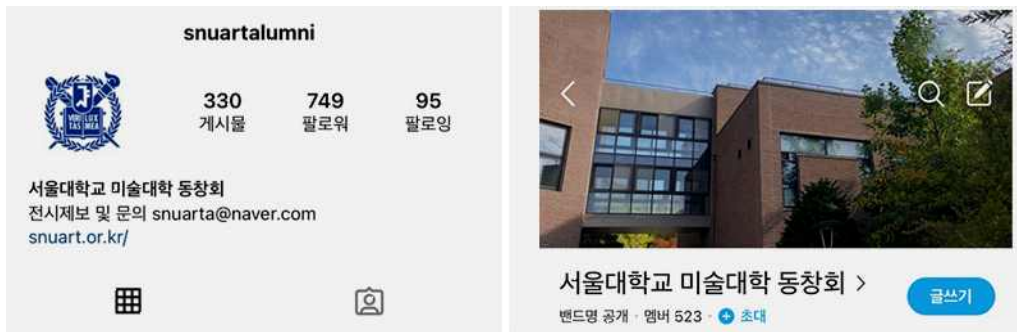
회비납부안내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창회 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

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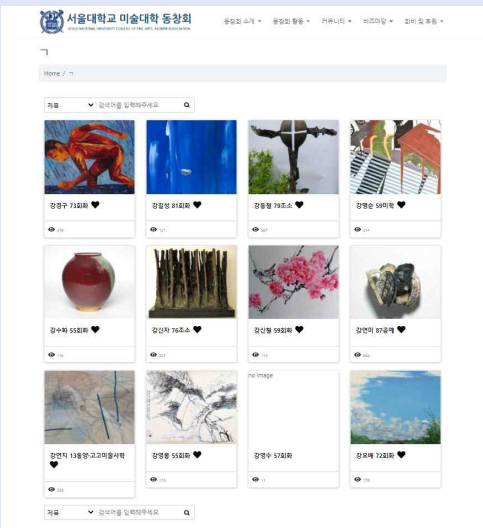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립니다

본회 홈페이지(snuart.or.kr) 아카이브에는 현재 700여명의 작품 및 약력이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 횟수는 1일 최대 780회, 1일 평균 100여회를 기록, 지금까지 총 5만5천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재대상도 기존의 시각예술작품 외에 영화, 공연, 저서 등 창작물은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등 실적물까지 확대해 전 동문의 아카이브를 제작중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리고 기존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요청시 수정, 보완해드립니다.



게재신청

메일주소: snuarta@naver.com
자료: 이름(학번/과), 약력, 창작물이나 사업관련 이미지(3장)와 캡션
게재대상: 금년도 회비납부회원(납부안내는 본 페이지 왼쪽상단)
문의 : 02-555-1946

동창회 전화번호가 02-555-1946으로 변경됐습니다. 새로운 번호 1946은 모교가 창립된 해인 1946년을 기념하는 번호입니다.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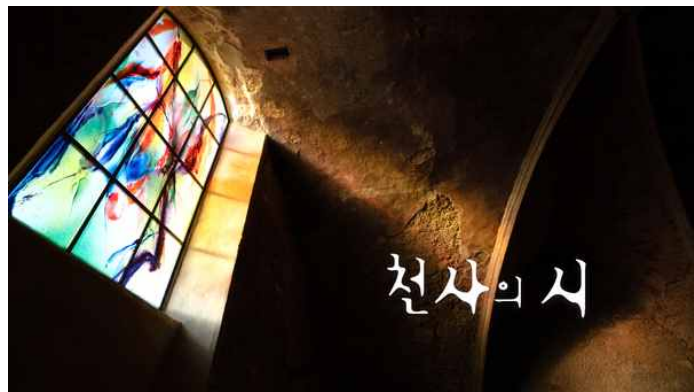
빛의 화가 김인중(59회화)



KBS '다큐인사이트 - 천사의 시'

재불화가이자 도미니크수도회 사제인 김인중 동문의 삶과 예술 담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적인 빛의 화가, 스테인드글라스로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김인중 동문의 삶과 예술세계를 그린 다큐멘터리 '다큐인사이트-천사의 시'가 지난 12월23일 KBS-1TV를 통해 방영됐다. 해당 다큐멘터리



는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끝자락에 많은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성찰, 감동의 시간을 전했다. 김동문은 재불화가이자 도미니크 수도회 사제로, 세계적인 미술 평론가故 웬디 베케트가 “만약 천사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의 작품과 같을 것”이라 극찬할 정도로 현지 화단에서 사랑받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스테인드글라스 중주국인 프랑스의 샤르트르대성당을 비롯해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세계 38개 나라에 설치되어 있다. 김동문의 작품을 매개로 프랑스 곳곳의 성당들과 수도원, 수도사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다큐 '천사의 시'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뚫고 프랑스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됐다. 중세 고딕 건축을 대표하는 샤르트르대성당부터 프랑스 남부 농촌마을까지의 대장정이 기록되었다.

'빛의 사제'로

동양화의 선과 서양 추상화의 기법을 접목한 스테인드글라스

1940년 충남 부여 출생인 김동문은 1963년 모교를 졸업후 ROTC 1기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 모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가톨릭학교인 성신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했다. 신앙과는 전혀 무관했던 그는 거기서 가톨릭에 입교했다. 1967년 대학원을 수료한 그는 1969년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큰 세상을 경험해 보자'는 생각으로 무작정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스위스 프리부르대학에 입학했는데, 이 대학은 프랑스 도미니크수도회와 연결돼 있었다. 입학하고 1년 뒤 그는 신부가 되겠다는 의사를 학교 쪽에 밝혔다. 학교 쪽은 '사제가 되려면 한국에서 하지 여기 와서 하느냐고 반대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그는 바로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1974년 사제 서품을 받아 1975년부터 지금까지 파리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로서 프랑스에서 수도생활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겸하고 있다. 유럽화단에서 활동하며 '빛의 사제'로 평가받고 있는 김동문은 2003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착좌 25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혁명 이후 200여년만에 처음으로 파리 노트르담대성당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으로도 호평 받고 있는 그는 2000년에는 브로데페르게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12점)를 비롯해, 2005-06년에는 가나고비성당 스테인드글라스(8점)를 제작했다. 2006년에는 12세기에 지어진 프랑스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샤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복원에 2점의 작품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샤르트르대성당 최초의 주교인 힐베르 성인 1000년



을 기념한 것이다. 2008년에는 천년 역사의 생줄리양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위사진) 공모에 당선되어 38점의 작품을 설치한 그는, 유럽에서 120여 차례 전시회, 수십여 차례 방송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원교구 용인 신봉동성당(아래사진)과 대전 자양동성당에서 그가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나볼 수 있다. 저서로는 「AVE MARIA」, 「빛은 춤을 춥니다」, 「김인중 신부의 그림시편」, 「시편 속 빛의 사제」, 「우물속에 뜨는 별」, 「삽화가 실린 희망과 기도」, 「김인중의 빛 속에 묻힌 브리우드 썸 줄리앙 바질리카」, 「미지세계의 편린」 등이 있다. 201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공훈훈장 오피시에를 수상했으며, 2016년 프랑스가톨릭아카데미 회원으로 추대됐다. 또한 2019년에는 프랑스 앙베르에 김인중미술관이, 프랑스 이수아르에 김인중 상설전시관이 개관됐다.

2월 19일까지 초대전 '빛의 노래'

초기부터 최근 작품까지 60여 년 예술혼 한자리에 모아



'다큐인사이트-천사의 시'도 상시 상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초구 흰물결갤러리에서 개막해 오는 2월 19일까지 이어지는 김동문의 개인전 '빛의 노래'에서는 좀처럼 실제로 만나기 어려웠던 1960년대 그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다채로운 41점의 회화 작품이 전시되어 그의 60여년 예술혼을 만날 수 있다. 김동문은 전시작에 대해 “예술이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향해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라 말하며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세계화를 그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전시장에서는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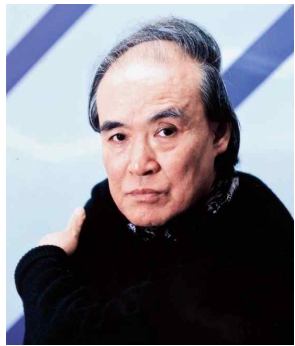
송영방 고문 별세 송영방(55회화/1936-2022)



본회 고문 우현(牛玄) 송영방 동문이 지난 12월 27일 8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송동문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도전을 거듭하며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는 동양예술정신에 기반을 두고, 전통적인 문인화가의 심상으로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끊임없이 이어 온 작가로 평가받는다. 산수화를 비롯해 인물, 화조, 동물, 사

군자 등 전통적인 문인화 외에도 불화, 삽화,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열의 작품을 두루 아우르며 '소박하고 평담한 화격의 독보적 작품세계를 이룩한 한국화가'로 손꼽힌다. 한편 모교 회화과에 입학해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한 송동문은 졸업한 해인 60년에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면서 미술계에 데뷔했다. 이후 오늘날 '수묵추상'의 뿌리가 된 전위적 한국화 단체 '묵림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1996년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과 서울시 문화상 미술부문, 2002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및 학장,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송동문의 작품은 국내 뿐 아니라 대영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세카이 미술관 등 해외 유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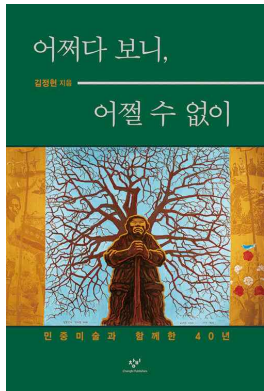
예술원 회장 취임 유희영(58회화)



유희영 동문이 지난 12월 20일 대한민국예술원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원 분과회장, 내빈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대 회장단 취임식을 개최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2월 19일까지다. 한편, 충남 서천 출신인 유동문은 모교 4학년 때 대한민국전람회(국전)에서 특선을 한 이후 문화공보부장관상 2회에 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 큰 나이에 추천작가에 올라 추천작가상을 수상했다. 이후 경희대 미술교육과

교수, 이화여대 미술학부 교수 및 조형예술대학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자문위원장,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다. 2005년에는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고 2009년에는 대한민국미술인상을, 2013년에는 5.16민족상 예술부문을 수상했으며 2006년부터 대한민국예술원 미술분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1년부터 충북 옥천의 새로운 작업실에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유동문은 자연 속에서의 사색의 경험들을 색면추상으로 녹여내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기하학적인 면과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렬한 색채는 유화물감을 겹겹이 발라 올리고 여러 번의 색조합을 거쳐서 제작된 것으로 이러한 조색법은 화면 안에서 유화물감 그 자체의 물질성을 넘어서는 감흥을 이끌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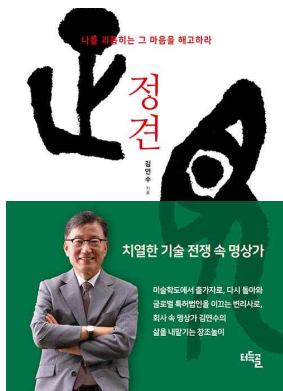
민중미술 40년 회고록 출간 김정현(65회화)



원로 민중미술 작가 김정현 동문의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 민중미술과 함께한 40년>이 출간됐다. 김동문은 1980년대부터 진보적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민중미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가다. 그는 최초의 민중미술 단체 중 하나인 '현실과 발언' 발기인으로 나서 미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민중미술 운동의 기반을 다져왔다. 1980년대 군부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며 예술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변혁적 목소리를 냈고, 민족미술협의회와 문화예술위원회 등 주요 예술단체 및 기관

을 이끌며 민중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우리의 현실 문제에 천착하는 작품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책의 제목대로 우연인 듯 필연처럼 한평생 예술을 통한 사회적 실천에 힘써온 그의 삶과 가치관을 담은 이 책은 민중미술사의 굵직한 사건과 주요 인물 또한 생생하게 담아내 민중미술 40년 역사를 읽는 자료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책 1부에는 민중미술 화가로서 정체성을 다지고 세상과 소통해온 그의 화업과 평생 역정이, 2부에는 그가 그간 예술과 인생에 관해 썼던 칼럼 등이 실렸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 동안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일했으며,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전국민족미술인연합 공동의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예술과마을네트워크 대표,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명사가 변리사 김연수(76응미)



김연수 동문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직원 100명이 넘는 한양특허법인의 대표로 삼성스마트폰과 현대자동차, 이랜드, 칼자이스, 파나소닉 등의 글로벌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 김동문은 초등 3학년때 부친을 잃고 집안이 파산하면서 죽고 싶어 한강 다리까지 갔던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과외 교사, 신문 팔이, 장사 등 소년가장으로 안 해본 일이 없던 그는 고교 미술교사의 권유로 모교에 진학했다. 모교를 다

니다 중퇴하고 불가에 출가했던 김동문은 2년 후 환속해 속세로 돌아왔다. 이어 변리사 시험에 수석합격하고 로펌 '김앤장'에서 근무하다가 개업한 한양특허법인을 업계 상위 1%로 키워냈다. 명사 관련 책만 10권을 낸 명사가이기도 한 김동문은 2008년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좌절의 족쇄에서 깨어나 자유로워진 자신의 깨어남 체험을 나누는 교육장인 피올라마음학교를 설립해 현대적인 명상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난 9월에는 치열한 기술전쟁터에 있는 그가 마음만은 고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로 자신의 마음 공부 방법을 총정리한 명상서 '정견'을 발간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는 (주)매지SC를 설립해 청소년 인성교육, 영성 독서사업, 웰에이징 교육사업, 영성 유튜브 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분 컬러링북 : 귀여운 동물 컬러링' 출판 김충원(79응미)



김충원 동문의 신간 '5분 컬러링북: 귀여운 동물 컬러링'이 출간됐다. 이번 신간은 윤곽선이 스케치된 귀여운 동물 밑그림에 색연필로 채색하는 컬러링북으로, 왼쪽 페이지의 동물 그림 및 컬러링 기법과 컬러 칩을 보면서 오른쪽 페이지의 밑그림에 컬러링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책이 짝 펼쳐지는 '누드 양장 제본'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귀여운 동물 컬러링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신간을 통해 친칠라, 기니피그, 아기 치타, 하프물범 등 40여 종의 귀여운 동물을 사선 스트로크, 스쿼글 스

트로크, 윤곽선 드로잉 등 색연필 채색 기법의 기초를 다지며 컬러링 할 수 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으며, 명지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다섯 번의 개인전을 연 드로잉아티스트이자 전 방위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미술교육에 관한 강연 및 집필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는 방송과 출판 등을 통해 국민미술선생님으로 불리며 250여권의 각종 미술전문서적과 창의력 개발 교재를 발표했다. 90년대 초, '김충원 미술교실' 시리즈를 필두로 어린이 미술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며, 2007년부터 발간된 '스케치 쉽게 하기', '이지 드로잉 노트' 시리즈는 취미미술 교양서의 고전이 되었다. 최근에는 '5분 스케치', '5분 컬러링북' 시리즈를 통해 누구나 쉽게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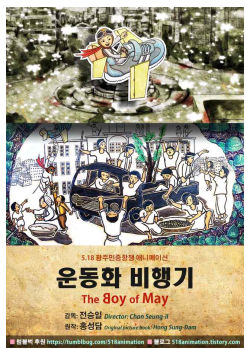
세지는 엄마가 셋 유승희(82회화) · 윤봉선(82회화)



유승희 동문과 윤봉선 동문이 지난해 12월 28일 신간 '세지는 엄마가 셋'을 발표하였다. 글을 쓴 유동문과 그림 작가인 윤동문은 듀오로 활동하는 부부 작가이다. 2021년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지원도서로 선정된 이번 신간은 낳아 준 엄마, 키워 준 엄마, 다시 가족으로 받아 준 새엄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동문은 이 작품에서 '자연의 섭리'나 '운명'을 살짝 비켜가는 뱀새와 빠꾸기를 통해 인간 가족의 다양한 형

태를 들여다보게 한다. 콩쥐팥쥐, 신데렐라와 백설 공주의 전래동화로부터 이어 내려온 계모의 악한 이미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벗어나기 힘든 고정관념이다. 이 시대에 많은 어린 독자들에게 새엄마라는 단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지와 세 엄마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한편 부부가 함께 작업한 책으로는 '참깨밭 너구리', '지구행성보고서', '세아의 숲', '갈대밭 그림자 체포 작전' 등이 있다. 동물을 무척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는 두 동문은 우화가 인간 사회를 동물 세계로 치환시키기 때문에 냉혹한 본질을 독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들려줄 수 있어서 좋다는 점과 어린이 독자들에게 사람의 본성과 어울려 사는 사회의 원리를 쉽게 보여 주기 좋다는 점에 우화 형식을 선택해 작업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운동화 비행기' 클라우드펀딩 전승일(85서양)



90년대 후반부터 독립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전승일 동문이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금정굴 이야기'에 이어 차기작으로 5.18 민주항쟁을 다룬 '운동화 비행기'를 준비하고 있다.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 '운동화 비행기'는 80년 5월 광주를 직접 겪은 홍성담 화백이 37년 동안 품어온 이야기를 담아낸 동명의 그림책 '운동화 비행기'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아프고 슬픈 참상보다 서로의 손을 잡고 신군부의 폭력에 맞서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던 시민들의 연대와 대동정신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원작 그림책 '운동화 비행기'는 80년 5월 '송암동 사건'으로 계엄군에 의

해 무고하게 희생된 초등학생 전재수(당시 11세)군과 방광범(당시 12세)군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민주주의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의 숭고한 이야기를 그림에 담고 있다. 전동문이 제작중인 애니메이션 '운동화 비행기'는 오는 3월 1일까지 텀블벅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2일 기준으로 목표금액 900만원의 177%를 넘어선 15,932,000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한편 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애니메이션과 과학융합예술 분야에서 창작 및 저술 활동을 이어왔다. 1992년부터 독립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왔고, 30여 회의 오토마타 · 키네틱 아트 관련 전시를 했다. '금정굴 이야기' 뿐 아니라 HD 애니메이션 '하늘나무', 5.18 민주화운동 애니메이션 '오월상생', MOT 노래 'Cold Blood'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연출 제작했고, 제노사이드와 트라우마에 대한 예술적 성찰과 치유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오는 중이다.

영화미술, 움직이는 회화 심형근(90조소)



심형근 동문이 신간 '영화미술, 움직이는 회화'를 발표하였다. 심동문은 이 책에서 유명 화가의 작품이 영화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드는지, 미술과 영화는 어떻게 교류하며 영감을 주고받는지 100여장의 그림과 영화 장면을 통해 드러낸다. 영화 속에서 미술작품은 소품이나 장식 역할, 극적 고조, 영화 전반의 개성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활용되고 주제나 캐릭터를 상징하는 모티브로도 자주 등장한다. 나아가 영화는 미술을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술의 영역까지 확장해버린다. 미술은 영화 속에서 단순 복제되

기도 하지만 4차원의 예술로 승화되면서 서로 다양한 영감을 주고받는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리얼리즘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들이다. 도시인의 고독과 상실, 욕망이 묻어있는 호퍼의 그림은 많은 감독들에 의해 영화 속으로 들어갔다. 앨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1954년 작품 '이창'(Rear Window)은 휠체어를 탄 사진작가가 맞은편 아파트를 주의 깊게 훑쳐보는 내용이다. 영화의 여러 장면은 호퍼의 작품 '밤의 창가'를 떠올리게 한다. 1982년 개봉된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감독 리들리 스콧도 도시의 밤거리 장면에서 호퍼의 '밤샘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차용했다. 호퍼의 그림을 그대로 옮긴 영화도 제작됐다. 2013년 개봉된 구스타브 도이치 감독의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이 그것이다. 한편 심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10년간 KBS의 프로덕션디자이너로 활동하다 2007년부터 상명대에서 프로덕션디자인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AI연구자-예술가 만남의장 만든다 이진준(01조소)



KAIST 최초 미술가 전임교수(문화기술대학원) 이진준 동문이 내년 개관을 목표로 KAIST 교내미술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동문은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 관리하는 전통적인 미술관의 역할보다 연구, 교육, 네트워크 수립에 중점을 두는 미래형미술관을 만들 계획이다. 이동문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1순위 대상은 전세계 '아티스트 스콜라(Artist Scholar)'들이다. 아티스트 스콜라란 예술가

인 동시에 학자인 사람, 즉 단순히 작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을 여는 관점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이동문은 AI와 같은 최신기술을 활용하는 뉴미디어 아티스트 스콜라에 주목할 계획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에 편입해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영국 왕립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옥스퍼드대 인문학부 미술대학에서 순수미술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외 미술관에서 50여회의 전시와 강연을 진행하며 현대미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KAIST 연구실 'TX lab'을 설립해 데이터과학, NFT, AI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예술, 건축, 디자인, 공연에 관한 총체적 경험을 연구하고 있다.

아카데미상 예비후보 오수형(에릭오/ 02서양)



재미교포 오수형 동문의 '나무(Namoo)'가 제94회 아카데미상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예비후보에 호명됐다. 최종 후보에 오를 경우 한국계로는 2005년 호주교포 박세종 감독의 '버스데이 보이', 지난해 오동문 자신의 '오페라'가 이 부문 진출한 데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오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미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 애니메이터로 7년간 일하며 '몬스터 대학교', '인사이드 아

웃', '도리를 찾아서' 등에 참여하다가, 2016년 가을 픽사에서 독립한 뒤 실험적인 작품활동을 해왔다. 지난 1월 미국 선댄스영화제에도 초청된 '나무'는 오동문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영감을 받은 자전적 VR(가상현실)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한국말 발음 '나무' 그대로 영어 제목을 지었다. '나무'는 같은 부문에 호명된 영국 애니 '어퍼어스 오브 더 아트', 칠레 스톱모션 애니 '베스티아' 등 나머지 14편과 최종 후보를 겨루게 됐다. 한국영화로는 2019년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아카데미상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 최초로 올랐다. 이듬해 호명된 '기생충'은 전년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 이어 제92회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관왕을 차지했다. 최종 후보는 오는 2월 8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3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김수석 회고전 김수석(52응미/1933-2008)



부산미술 1세대 작가인 故 김수석 동문의 회고전이 부산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지난 1월 7일부터 20일까지 열렸다. 부산대학교 아트센터가 2022년 기획한 '부산대학교와 부산미술 도큐먼트 시리즈'의 첫 전시로, 1960-70년대 부산 근현대미술의 형성과 발전에 큰 업

적을 남긴 김동문의 작품세계와 그가 걸어온 작가의 길을 재조명했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에서 판화까지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한편 김동문은 1933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했다. 부산사범대학(현 부산교대) 강사, 부산고 교사, 숙명여대 교수를 거쳐 1975년부터 부산대 미술교육학과와 미술학과 교수로 제자를 육성했고, 부산대 예술대 학장을 역임했다. 또한 1986년 미술교육 전문가·화가·미학자로 구성된 한국색채교육학회 창립에 동참하였으며, 이후 한국색채교육학회 회장을 비롯 부산시 문화위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창립위원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부산지부장, 2002부산아시아게임 디자인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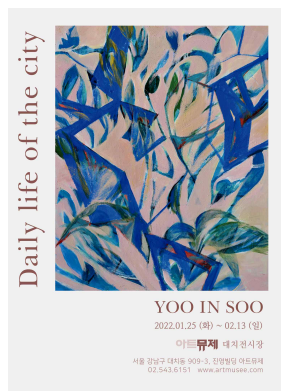
김소선 초대전 김소선(63조소)

김소선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종로구 갤러리 내일에서 열리고 있다. 김동문의 상상을 그려낸 민화, 식물화, 동물화 등이 전시된다. 고양이 베키가 올려다본 시점으로 그려진 식물들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큼지막한 모양새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양이 베키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는 세상의 이곳 저곳을 탐험하며 관점을 화폭에 투영한다. 김동문은 "이 그림은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천체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또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나처럼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모교를 졸업한 뒤 백자에 우리 민화를 그려온 화가는 진부령미술관, 국회아트갤러리, 가나아트센터, 경운박물관, 노르웨이 베르겐 국립박물관, 런던 한국문화원, 일본 키토모토박물관, 에카도르 키토국립박물관,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등 국내외 유명 박물관 및 미술관,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무주 국립태권도박물관, 국회의장 의전실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Daily life of the city 유인수(66회화)



유인수 동문의 21번째 개인전 'Daily life of the city'가 지난 1월 25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아트뮤제 대치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도시의 일상적 이미지와 그 속에 담긴 인간 내면의 모습을 다루는 유동문은 건물과 자연이 다양하게 혼재된 도시의 불빛과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 나가려 애쓰는 사람들의 내면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다종 국립미

술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80년 제1회 개인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을 시작으로 1991년 제5회 개인전(신세계백화점갤러리, 서울), 2000년 제9회 개인전(Artcore Brewery Annex, 로스엔젤레스), 2007년 제12회 개인전(한전아트홀, 서울), 2017년 천의 얼굴(세브란스아트스페이스, 서울), 2021년 제20회 개인전(세종갤러리, 서울) 등 20여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여왔다. 1982년에는 한국미술협회 은상을 수상했으며, 2000년 오지호 미술상 운영위원, 2002년 대전MBC미술대전 심사위원, 2006년 석주미술상 심사위원, 201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과 상명대학교 예체능대 미술학과 및 조형예술학부 서양화전공 교수, 학장, 서울시미술협회 부이사장, 한국종이접기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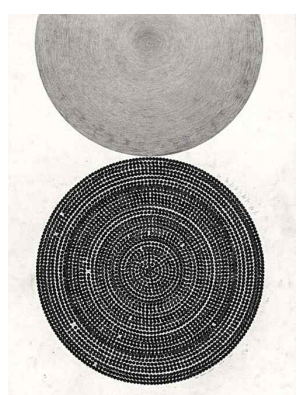
이강화 개인전 이강화(81회화)



이강화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대구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신비한 풍경을 담은 회화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이동문은 우리 삶의 언저리에 산재한 자연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스스로 생명력을 틔우고 살아가는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려낸 그의 캔버스는 목가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폭에는 길 한쪽 구석에 자리한 야생초나 떠

다니는 구름, 일몰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소박한 풍경이 자리한다. 더욱이 자연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녹아있어 자연에 대한 이동문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작업에서는 캔버스에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이용해 질감이 돋보이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었다면, 최근 작업에서는 마띠에르(재료, 소재)의 효과를 덜어내고 보다 자연의 흐름과 톤에 주목한 변화가 도드라진다. 풀과 꽃 등에서 파도, 폭포 등 대자연으로 시선이 옮겨간 것도 있다. 더욱이 최근작들은 캔버스가 아닌 나무에 그림을 그리는 등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프랑스 파리 국립8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프랑스, 독일, 중국, 에카도르 등에서 꾸준히 개인전을 열었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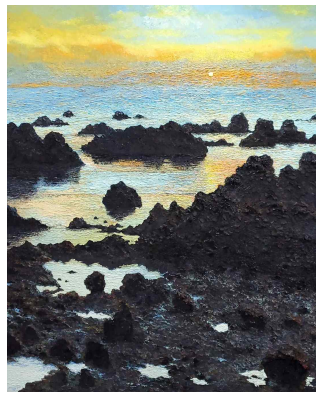
동일한 하루 전이린(86산디)



전이린 동문의 개인전 '동일한 하루(identical days)'가 종로구 소공헌 갤러리에서 지난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전동문은 신작 위주의 20여점을 선보인다. 비어있는 종이 위에 일정한 크기의 격자 형식 무늬(그리드)를 만들고 작은 점들을 수없이 반복해 메워가는 방식으로 시간의 개념을 기록해 시간의 양과 질에 대한 고찰을 엿볼 수 있는 작품 '하루'는 지구의 자전으로 이뤄지는 과학적

접근이 아닌 작품의 시작 시점과 완성되는 마지막 날로 정의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갤러리 소공헌 측은 "캔버스 위에 놓여진 점 하나하나에 지금의 순간을 새기며 그 반복성이 지향하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작가가 만들어 놓은 하루 속에서 자신만의 하루의 경계를 그리고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문은 모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뒤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회화와 판화를 전공했다. 순수 미술과 디자인을 아우르는 조형언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와 관람자가 어떻게 미적 경험을 공유하는가에 대한 실험적인 드로잉 작업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부 문화디자인경영학과에서 조형 실기와 현대미술을 강의하고 있다.

제주도를 그리다 김남표(91서양)



김남표 동문의 개인전 '제주도를 그리다'가 교보아트스페이스에서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열리고 있다. 'Instant landscape(즉흥적 풍경)' 시리즈로 유명한 김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그가 최근 몇 년간 집중해온 제주도 풍경을 담은 회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 작업실 안에서 10년 이상 그림을 그린 김동문은 지난 2019년 제주도로 터전을 옮긴 후 작업실 밖으로 나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주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연을 직접 마주한 인상을 화면에 담았던 것처럼 김동문은 바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 풍경을 그리는 작업은 그에게 새로운 시도였고 기존의 작업 방

식과 재료를 바꿔야만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교보아트스페이스는 "전시예 선보이는 김남표 작가의 그림들은 '잘' 하는 것을 버리고 낯설지만 새로운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며 "관객들에게 이번 '제주도를 그리다' 전시는 풍경 그림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숨막히는 삶을 벗어나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위로 받는 시간이자, 익숙한 것을 버린 후 새롭게 도달하고 싶은 '꿈'을 떠올려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그동안 10여회의 국내외 개인전을 열고 200여 회의 단체전과 Start art fair(런던), Art stage(싱가포르), Kiaf(서울) 등 다양한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전시기획부문 선정작가, 전국대학미전 대상, 창작예술협회 공모전 금상을 수상했다. 김동문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성남문화재단, 수원아이파크미술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세종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We Where 홍영인(92조소)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홍영인 동문이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종로구 PKM갤러리에서 지난 1월 19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사운드 설치와 대규모 자수 작품을 포함한 신작 8점과 2017년 제작한 2개의 사진·악보 시리즈가 전시된다. 홍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갈수록 잊혀 가는 '공동체'라는 주제에 주목했다. 근대 이전에 사람들이 실재한다고 믿었던 공동의 장, 즉 동물과 인간, 식물들 비롯해 모든 생명체의 영(靈)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신성한 영역들이 상실돼 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 평등한 관계의 회복을 염원한다. 나아가 홍동문은 그런 공동체의 영역을 사라지게 한 현대의 환원주의적이

고 배타적인 사고와 수직적인 사회 체계를 비판한다. 전시장 본관에서는 집단 제의의 도구로서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통로 역할을 했던 '사당도'에서 영감을 얻은 평면 자수, 입체 작업과 무리 생활을 하는 코끼리 조손(祖孫)을 전시장으로 불러들이는 사운드 설치, 옛 여성 직공들의 음성을 시적으로 조명하는 직조 작품이 선보여진다. 별관에서는 전후 근대화 시기의 특정한 장면들이선 드로잉, 바느질 작업, 펠트 조각, 악보,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로 변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홍동문은 이 작업들을 통해 과거가 하나의 시각으로 정의된 역사가 아니라 다양한 개별적 이야기로 다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영국 브리스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홍동문은 그동안 런던 블루크루니버스, 브리스톨 아르놀피니미술관, 마게이트 터너현대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전시공간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여 왔다.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로 선정됐고, 2011년 김세중조각상, 2003년 석남미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영국 바스미술대학의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Home 박진우(지누박·93공예)



지누박(본명 박진우) 동문의 개인전이 용산구 노들섬 스페이스445 갤러리에서 지난 12월 22일~1월 23일 열렸다. 루이비통 가방에 가짜라고 쓴 '페이크백', 스파게티처럼 빨간 전선을 늘어뜨린 '스파게티 상들리에' 등 재기 발랄한 작업으로 명성을 쌓아 지난 20년간 '유쾌한 디자이너'라는 수식을 달고 다닌 박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팬데믹시대 집과 가족의 의미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룬다. 그를 바꾼 것은 역병, 코로나였다. 1년 전 박동문의 부모와 세 살배기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아버

지는 보름 만에 돌아가셨다. 이번 전시에 내건 회화, 가구, 조명 등 50여 점의 작품은 박동문이 슬픔과 공포를 딛고 써 내려간 극복기이자 비슷한 비극을 경험한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다. 전시작 대부분은 몇 년간 진행해온 미대 졸업생들이 버린 작품을 주워 그 위에 글씨를 써서 재생하는 작업 'No more art'의 형식을 가져왔다. 기존 'No more art' 문구 외에 'Home', 'Father'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버려진 작품이 전시장에 걸림으로써 '새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코로나 당사자가 되어 보니 사회의 슬픔이 나의 슬픔과 연결되고, 나의 슬픔이 사회의 슬픔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술의 힘은 '공감'과 '재생'임을 절감했다고 그는 밝혔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공예과를 졸업하고, 영국 왕립예술학교(RCA)에서 디자인학 석사를 취득한 후, 현재 대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 이다. 2012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 차세대 디자인 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코엑스에 초대형 LED 작품 '0.4' 전시 강이연(02서양)



강이연 동문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K-POP 스퀘어에서 초대형 LED 미디어 작품 '0.4'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임인년 새해 1일부터 시작한 '예술로 치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예술로 치유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예술로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 중인 특별 프로그램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12곳을 찾아 일선에서 방역과 치료에 헌신한 의료진에 감사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21년에는 광장, 공항, 철도역 등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일상의 공간을 찾아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강동문의 알록달록 색띠가 돋보이는 미디어아트 작품 '0.4'는 단순해 보이지만 코

로나바이러스에서 시작하여 기후위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작품 제목 '0.4'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담겼다. 최근 단 10년(2011~2021)간 지구의 지표면 온도는 1850~1900년 표면온도에 비해 1.09도 상승했다. 현재 인류 삶의 패턴이 과감히 변하지 않는다면, 2040년에 1.5도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 체온도 정상에서 1도를 넘으면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1.5도를 넘으면 고열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강동문은 "예술이 우리의 미래를 향상시키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더라도, 우리를 이끄는 영감이 될 수는 있다고 믿는다"며 "2022년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를 포함하는 생물권(biosphere)의 치유를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작품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스무차례 송출된다. 한편 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학교 UCLA에서 디자인 미디어아트 석사, 영국 왕립대학교 Royal College of Art에서 박사 학위를 마쳤다. 영국 왕립예술학교의 객원교수이자 세계 최고 권위의 소사이어티인 영국 왕립예술학회 Royal Society of Arts의 펠로우로, 밀라노 공대, SOAS 런던대학교, 런던 소더비 인스티튜트,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의 유수 교육기관에서 강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